“아미타 신앙 핵심개념, 불교 內 기원”

조준호 연구원, 제2회 성운학술상 대상 수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미타 신앙의 핵심 개념이 초기불교에서 기인한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다.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춘계학술대회 및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운학술상 대상의 영예는 조준호 한국외국어대 인도연구소 초빙연구원에게 돌아갔다.

조준호 연구원은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구명- 염불신앙의 본래 의미와 새로운 조망을 위한 시론’ 제하의 논문을 통해 ‘아미타불’ ‘무량광불’ ‘무량수불’ ‘극락정토’ 등 아미타신앙의 핵심 개념들이 초기불교에서 기원하고 있음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심층적으로 고찰했다.

그간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은 힌두교나 페르시아 등 외부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외부 기원설에 무게가 더 실려 있었다. “아미타 신앙은 초기불교로부터의 발전적 전개를 통해 이뤄졌다”는 조준호 연구원의 주장은 외부 기원설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아미타불(阿彌陀佛)은 ‘Amitābha’ 의 음역으로 ‘무한한 빛의 부처님’ 이라는 의미다. 이는 의역으로 ‘무량광불(無量光佛)’ 로 옮겨졌다.

조준호 연구원은 “초기불교에서 이치를 통찰하는 체험 또는 진리 체험은 광명과 함께 한다. 나아가 사무색정과 상수멸정에 이르기까지도 광명과 청정은 지속된다”면서 “초기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는 붓다 개념의 본질은 광명에 있다. 이는 아미타불의 기원이 외부 종교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미타불 異敎 기원 반박해
佛=광명… 초기불교서 근거
아미타불 · 극락정토 초기 연원
“초기대승 삼매 염불과 관련”

인도 대승불교의 대표 논서인 〈대지도론〉 등에서도 붓다의 광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대반열반경〉에 이르면 광명과 붓다, 염불은 같은 것으로 설해진다.

조준호 연구원은 “대승경전에서도 초기불교에 이어 붓다의 본질은 광명임을 천명한다. 광명은 염불과 직결된 관계”라면서 “광명의 붓다관은 대승불교의 기원과 함께 전개되며 정토 염불 신행의 핵심인 무량광 아미타불의 개념이 외부가 아닌 불교 본래의 사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불교학회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초빙연구원(사진 왼쪽)이 김성철 한국불교학회장(사진 오른쪽)에게 대상을 받고 있는 모습.

또한, 무량광과 무량수 역시 초기불교의 붓다 개념에 근거하며, 극락정토도 불교 삼계 밖의 이교가 아닌 불교의 삼계 안에 있다는 게 조준호 연구원의 주장이다. 조준호 연구원은 극락정토의 위치를 색계 제사선천인 정거천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거를 통해 조준호 연구원은 정토 염불은 완전하게 불교 내부에 근거함을 주장하며 염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는 “염불 신행의 대승불교 흥기의 발단이다. 초기 대승에 나타나는 선정삼매 대부분은 염불과 관련되며 신앙 실천의 역동성 역시 염불에 있다”며 “염불로서 붓다를 자신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현실로 역사의 현장으로 현현시킨다. 불교의 종교성은 염불신행을 통해 풍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시상식 이후에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바정토-불교적 이상사회는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열린 춘계학술대회는 △어떤 정토를 꿈꿀 것인가(지혜경, 연세대) △불교와 지속가능한 발전(손석춘, 건국대) △공덕과 수행으로서의 보시와 그 현대적 함의(장성우, 동국대) △공유경제시대 불교경제학의 미래(김성옥 · 이상호)가 발표됐다.

“약수암 관음상, 근대 佛母 보응문성 작품”

전통장인硏 창립 학술대회서
최선일 위원, 불상 분석 · 발표
한국전쟁 살아남아 현 자리로
보응문성 작품 확인… 첫 공개

정읍 약수암(주지 법연)에 봉안된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이 근대 거장으로 평가받은 보응문성 스님의 작품임이 확인됐다.

한국전통장인연구회(회장 한봉석)는 5월 25일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조선 말기와 근대 불교미술의 거장(巨匠)- 보응당 문성의 삶과 예술 세계’ 를 주제로 창립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가 주관을, 정읍 약수암이 후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전문 연구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연구’ 에서 봉안 과정에 대해 살폈다.

최선일 위원은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은 1928년에 임실 성조암에 봉안하기 위해 보응문성이 조성한 불상”이라며 “한국전쟁 중 성조암이 파괴되면서 읍내에 있던 운수사로 이운됐다가 2006년에 현재의 정읍 약수암으로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좌관음보살상은 근대 불교미술의 거장인 보응문성이 만든 중요한 작품으로, 근대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 작이 될 수 있는 성보문화재”라고 주장했다.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 근대 거장 보응문성의 작품임이 확인됐다.

김요정 충남대 초빙교수는 관음상에 대한 연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요정 교수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의 과학적 분석’ 에서 “조성연도가 1928년으로 알려져 있는 정읍 약수암 소조관음보살좌상의 목재틀과 밑판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약 220년 수령의 일본산 가문비나무로 제작했음이 확인됐다”면서 “당시 건축 부재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된 목재가 일본에서 수입됐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응문성 스님의 다른 작품들에 대한 전문 연구들도 소개됐다. 대회에서 이승희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은 ‘보응당 문성 불화의 전통성과 근대성’ 을, 최경현 문화재청 감정위원이 ‘보응 문성과 송광사 성수전 벽화’ 를 각각 발표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전통장인연구회 창립을 기념해 열렸다. 한봉석 한국전통장인연구회장(경기도 무형문화재 제49호 목조각장 보유자)은 “전통 장인의 삶과 전통 기법 등을 찾아내기 위해 전통장인연구회를 창립하게 됐다”면서 “ 앞으로도 역사 속 수많은 장인들의 삶을 복원해 한국미술사의 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수행 현황 점검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6월 14일 학술대회

간화선부터 위빠사나, 마음수행 등 한국불교에서 이뤄지는 수행법들의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 이하 종학연구소)는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교내 만해관 253호에서 ‘삶과 수행- 수행이 가져다주는 삶의 변화’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종학연구소는 간화선 이론과 수행이라는 기존 연구 의제에서 조계종과 한국불교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교수행과 명상을 조명 · 고찰하는 것으로 의제의 외연을 확장했다.

발표 논문 주제 역시 간화선부터 위빠사나, 명상 등 폭이 넓다.

해남 미황사 주지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 금강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현황과 제언’ 을, 김재성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한국의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의 현황’ 을, 인도 다람살라에서 정진하고 있는 일문 스님은 ‘한국에서의 티베트 불교 마음 수행에 대한 일고’ 를 발표한다.

또한, 명상을 심리학과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논문들도 소개된다.

한국명상학회 이사장인 김완석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는 ‘명상의 심리학’ 을, 대한명상의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강욱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명상의 의학적 적용’ 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에는 간화선과 위빠사나, 사마타 등 다양한 수행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황 분석을 주로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이를 조금 더 심화시켜 학술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종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 출범했으며, 그간 7회에 걸쳐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2018년 UCLA에서 열린 제6회 대회에는 한국의 간화선의 이론과 수행에 대해 미국 불교학계에 전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고양 원각사 소장 성보문화재 조명

원각사 · 동북아불교硏, 6월 22일 학술대회

송광사 일산분원 고양 원각사(주지 정각)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고양 원각사는 오는 6월 2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원각사 소장 불교문화재 연구’ 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회의 주관은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맡았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각사에 소장된 불교 성보문화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들이 소개된다. 김성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위원은 ‘갑사 사적을 통해 본 의승군 영규대사의 활동 연구’ 을, 중앙승가대 교수 정각 스님은 ‘조선통폐지인 연구’ 를,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원각사 소장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 성수’ 를, 김요정 충북대 초빙교수는 ‘원각사 소장 목조불상의 과학적 분석’ 을 신광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는 ‘원각사 소장 현왕도 연구’ 를 각각 발표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선학회 학술지 〈선학〉 30집 발간



한국선학회(회장 김방룡)는 최근 학술지 〈선학〉 30집을 발간했다. 이번 학술지에는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서광 스님의 ‘유식 30송의 치유효과 탐색’ △조계종 교육아사리 형운 스님의 ‘선종사에 기술된 신수와 신회의 평가-〈송고승전〉과 〈경전전등록〉을 중심으로’ △조계종 교육아사리 명준 스님의 ‘〈벽암록〉 시심마의 용처에 관한 일고’ 가 수록됐다. 또한 우두종의 한국 전래에 대한 감심흡(동국대 한국불교융합학과 박사수료)의 중국어 논문도 실렸다.

한편, 한국선학회는 5월 31일 충남대 문원강당서 ‘중국 근현대 거사불교와 생활선’ 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